

통일시대가 온다

북한의 사찰

60여곳 목탁소리... "문화교류 마당으로"

14일 남북 정상이 경제·사회·문화 등 4개 분야의 교류를 합의 서명함에 따라 다방면에서의 남북간 문화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교계의 남북한 교류도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히 불교유적지인 사찰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다. 북한 사찰 가운데 상당수는 6.25전쟁 등으로 인해 소실되었지만, 현재까지도 60여 사찰이 남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휴전선 너머 북한 불교 사찰과 문화재를 직접 만날 그날을 그려보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진 평양과 민족의 영산 금강산, 묘향산 등지의 사찰에 대해 알아본다.

광개토대왕 때 지은 대성산 광범사 국보지정

●평양의 사찰

반세기만에 분단의 벽을 허문 역사의 현장인 평양에는 광범사, 정릉사, 법운암, 용화사, 영명사 등 유서깊은 사찰이 명맥을 잇고 있다.

평양 대성산에 위치한 광범사는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지은 고찰이다. 6.25전쟁 때 대부분 불탄 것을 90년 현상태로 복원하였다. 현재 북한 국보 유적 16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북한 승려양성소인 불학원이 이곳에 있다.

평양 외곽 통상리 동명왕릉 입구에 있는 정릉사는 고구려 장수왕 15년에 창건됐다. 고구려 동명왕의 명복을 받고 동명왕릉을 지키기 위한 나라의 원찰(願刹)이었다. 최근에 새로 지었는데, 탑을 중심으로 사찰의 기본 골격만 세워 전형적인 고구려식 가람배치 양식을 지키고 있다.

평양 외곽 통상리 동명왕릉 입구에 있는 정릉사는 고구려 장수왕 15년에 창건됐다. 고구려 동명왕의 명복을 받고 동명왕릉을 지키기 위한 나라의 원찰(願刹)이었다. 최근에 새로 지었는데, 탑을 중심으로 사찰의 기본 골격만 세워 전형적인 고구려식 가람배치 양식을 지키고 있다.

평양 외곽 통상리 동명왕릉 입구에 있는 정릉사는 고구려 장수왕 15년에 창건됐다. 고구려 동명왕의 명복을 받고 동명왕릉을 지키기 위한 나라의 원찰(願刹)이었다. 최근에 새로 지었는데, 탑을 중심으로 사찰의 기본 골격만 세워 전형적인 고구려식 가람배치 양식을 지키고 있다.

수많은 사암 6·25때 소실 표훈사·마하연 남아

●금강산의 사찰

1만 2천봉 8만 9암자라는 이야기가 말해 주듯 금강산에는 예로부터 수많은 사찰과 암자가 들어서 있었다. 특히 표훈사, 마하연, 장안사, 신계사를 금강산의 4대 사찰이라 일컬어 왔는데, 전쟁 등으로 인해 소실되고 지금은 표훈사와 마하연만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표훈사의 현재 모습도 6.25전쟁 때 반야보전만 남기고 불탄 것을 복원한 것이다. 또한 표훈사는 금강산의 주불인 법기(法起)보살을 모신 곳으로도 유명한데, 500척의 돛시루와 53부처님을 새긴 철탑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지금은 없다.

내금강 만폭동에 자리잡은 신라 고찰인 마하연은 원래 사찰 강당으로 지은 건물로 규모와 구조가 웅대하다. 부근에 만화암, 불지암, 연화대 등 옛 사찰건물과 유적이 남아 있다.

유점사는 금강산 지역의 대본산이었다.



◇경주시의 주불인 법기보살을 모신곳으로 유명한 표훈사는 6·25전쟁 때 대부분 불탄 것을 복원했다.

이 사찰에 있는 여러 전당 중에도 능인보전(能仁寶殿)은 최고의 자랑이었고, 신라 말에 조성한 53불이 있었으나 소실되었다. 장안사는 원나라 순제의 황후가 된 기씨가 지었다고 하는데 건축 기법이 정교하기로 유명한 사찰이다. 일곱 전각, 네 개의 누각과 함께 보물 제120호로 지정되었으나 6.25 때 전소되었다.

또 법기봉 허리부분의 깎아지른 절벽바위에 1개의 가는 구리기둥으로 3층이나 되는 암자를 떠받치고 있는 입자가 특이한 보덕암이 있다. 관음보살의 화현인 보덕각사의 설화가 전하는 이곳에는 백색의 관음상이 모셔져 있는데, 영험하기로 유명하다 한다.

내금강에 위치한 정양사 또한 6.25전쟁 때 파괴된 것을 전후 복구에 현재에 이르렀다. 특히 약사전은 조선 후기에 복원된 것인데, 육각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들보와 못 하나도 쓰지 않고 지었다.

보현사 북한불교 본산격 8각13층 석탑 '고려명작'

●묘향산의 사찰

묘향산에 위치한 보현사는 북한에서 가장 큰 절로, 북한불교의 본산격이다. 고려 현종 때 창건했는데, 6.25전쟁 때 반 이상 파괴된 절을 복원해 오늘날의 모습을 이루었다. 보현사 경내에는 고려시대 석탑을 대표하는 명작이라 일컬어지는 보현사 8각 13층 석탑을 비롯 불교역사박물관을 세워 전국 사찰에서 나온 많은 불교유물을 보관 전시하고 있다.

보현사의 신내 암자로는 삼원암이 현존한다. 묘향산 제일암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묘향산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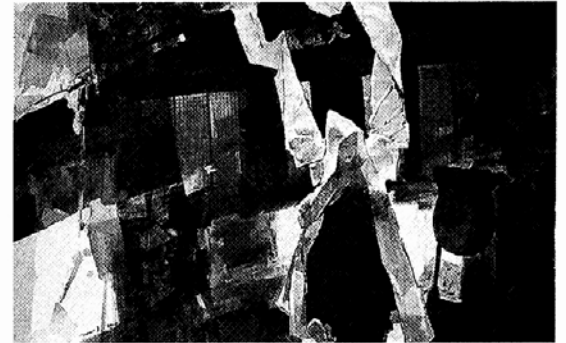
암자다. 16세기에 지어진 암자로 기도처, 수도처, 공양간에 수까지 있는 제법 큰 규모다.

서산대사가 수행하던 곳으로 이름높은 금강굴은 칠성동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바위틈에 만든 돌굴인데 숨은 듯이 겸손하게 지어져서 수행자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하다. 암자입구에 '청호방문(淸虎方丈)'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묘향산 만폭동으로 오르는 초입에 위치한 거대한 안심사 부도밭. 총 44기의 부도와 19기의 비석이 남아 있는 이곳에는 고려 말 대신사 지공스님과 나용스님의 부도, 서산대사의 부도 등이 있다. 지금은 부도만 남아 있는 안심사는 보현사의 할아버지가 되는 고찰이다.

이렇듯 북한에는 아직도 많은 사찰들이 남아 있다. 법타스님이 올 초에 펴낸 <북한 불교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사찰은 60여 곳이 현존하고 있으며, 1만여명의 불교신자와 300여명의 승려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신앙 공간으로서의 북한 사찰은 55년이라는 분단 세월 속에 많이 변모해, 관광 휴양지가 된 경향이 짙다. 절을 지키고 있는 스님도 대차승으로 불교 성보를 관리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며, 정기적인 법회가 열리는 사찰은 거의 드물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부처님 오신날 만큼은 수많은 불자들이 절을 찾아 등불을 밝힌다고 한다. 앞으로 남북의 스님과 신도가 자유롭게 오가는 사이 오랜 세월동안 단절됐던 불교적 전통이 되살아나고, 부처님 톨에서 또 하나의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한민족의 혼을 표현한 이철호씨의 '승무'.

조선족 2세 작가의 그림화두

'나는 누구인가'

이철호 작품전...서울·광주서 전시

중국 연변에서 조선족 2세로 살면서 끊임없이 되물어온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그림으로 풀어낸 이철호(39.중국 연변대학 연변예술대학 부교수) 근작전이 서울과 광주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아버지의 나라인 조국에 와서 생활한 3년 동안 그린 30여 점의 근작들을 선보이며 조국에서의 시간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서울 인사동 아트사이드넷에서 21일~27일,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7월 5일~9일까지 두 차례 열리게 되는 이번 전시는 이철호씨의 특별한 소망을 담고 있어 더욱 뜻 깊다. "국적은 중국인이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서가 제 속에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을 담고 있는 불교 문화를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대담한 구도, 빼어난 분석력, 원숙한 묘사력으로 인정 받고 있는 그는 앞으로 박경리의 토지를 읽고 받았던 감동에서 착안, 한국의 민족사를 재정의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중 역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재정립 작업이 될 것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동화사 판소리합창단 창단

선지식의 법문을 판소리합창곡으로 작곡해 불교 행사 때는 물론 수행법으로 부르는 이색적인 합창단이 결성됐다. 팔공산 동화사신도회는 17일 교계 최초의 동화사판소리합창단을 창단했다.

동화사판소리합창단은 지난 98년 영남불교대학·관음사에서 108곡악단을 만든 바 있는 회장 임재욱씨(47 법운)의 발원으로 추진됐다. 택시운전을 생업으로 하며 합창단 총지휘를 맡고 있는 임씨는 법문과 청법가 등을 불자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판소리 평조로 작곡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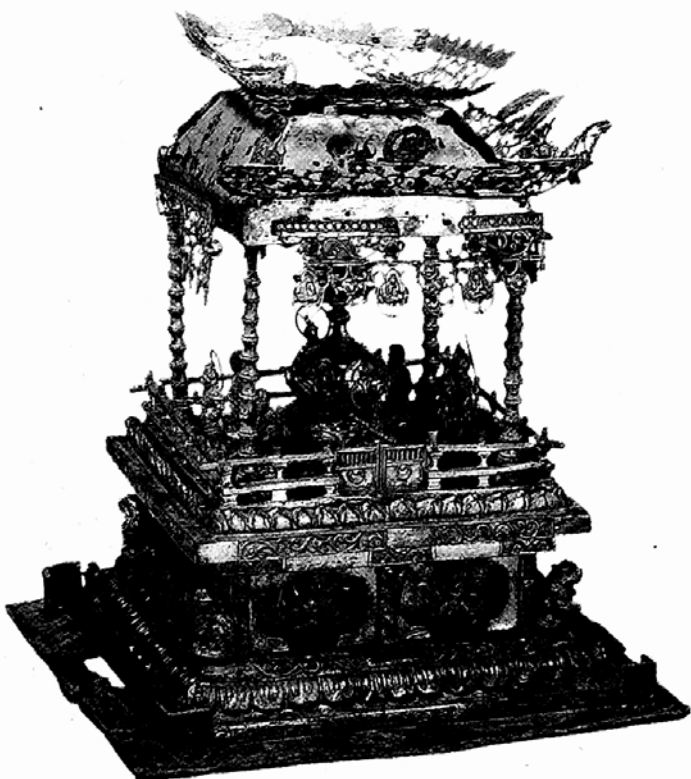
30여명의 순수 아마추어 단원으로 구성된 동화사판소리합창단은 대구시 동구 용계동에 고가목을 빌려 전용연습실을 마련, 매일 저녁 연습에 임하고 있다. 대구=이윤호 기자

'자비의 말씀' 기금마련 판화전

강행복씨 작품 무료기증 24일~7월2일, 조계사서

종경소리 '자비의 말씀' 지하철 포교 기금마련 불교판화전이 24일~7월 2일까지 조계사 문화교육회관에서 열린다. 기금 마련 판화전에는 판화가 강행복씨의 작품이 35점이 전시 판매된다. 이번엔 선보이는 작품은 강씨가 그동안 자비의 말씀에 무상으로 제공해 왔던 것으로, 수익금은 전액 지하철 포교 운영기금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 전시기간 중 조계사 경내에 그동안 지하철에 게시했던 포스터와 염서형 '자비의 말씀'을 모두 전시한다. 지하철포교를 내세우며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포교계시관 '자비의 말씀'은 철도청, 도시철도공사 소속 모든 역사에 설치 승인을 받음으로써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그러나 게시판 협찬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은자 기자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사리장엄구 특별전



경주 감은사 동상층석탑 출토 금동전각형 사리기

통도사성보박물관의 신축개관 1주년 기념특별전 『불사리신앙과 그 장엄』전이 많은 불자들과 관심있는 분들의 성원으로

지난 2일 개막 이래 연일 3,000여 명이 입장하는 등 성황을 이루어 지금까지 약 3만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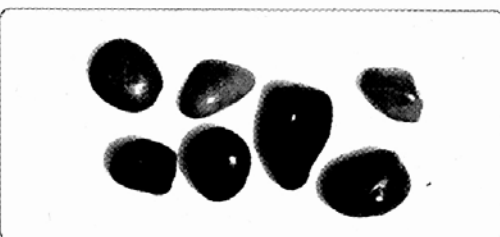
사리장엄구는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불교예술품으로, 1996년 발견된 후 보존처리를 거쳐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감은사동탑 사리구를 비롯하여 전국 50여 기 불탑에서 출현한 국보·보물 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도사 창건주인신 자장왕사께서 중국 당나라에서 모셔와 1,400년만에 처음 공개되는

부처님 진신사리도 친견할 수 있는 금생(今生)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은 모두 동참하시어 무량공덕을 쌓아 업장소멸하시기 바랍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梵河 합장



1,400여 년 전 자장왕사께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 사리 친견 안내 ◆

- 전시기간 : 2000년 6월 2일 ~ 7월 31일까지
- 친견시간 : 매일 오전 8시 ~ 오후 7시(사리친견 기간 중 휴관 없음)
- 입장료 : 개인 3,000원 / 단체 2,000원
- 예약안내 : 전화 0523) 384-0010, 팩스 0523) 384-0030(담당자 : 이승현) (연락시 방문일시, 사찰이름, 예상인원, 인솔스님 명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찰이나 신도단체에서 미리 예약하시면 특별요금 1,000원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부산, 울산, 경주 등 가까운 지역에서 친견을 오실 때 30인 이상 단체일 경우 박물관 버스(45인승)를 운행해 드립니다.